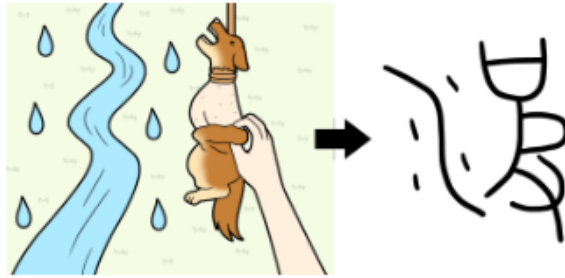


4(2)
-
221

회의문자①



波

물결 파

波자는 '물결'이나 '주름'을 뜻하는 글자이다. 波자는 水(물 수)자와 皮(가죽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皮는 동물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波자는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皮자를 응용해 일렁이는 파도를 표현한 글자이다. 일렁이는 물결은 서서히 주위로 흩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波자는 '물결'이라는 뜻 외에도 '진동하다', '주름지다', '요동치다'와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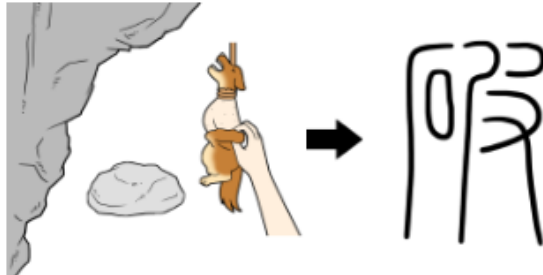
소전

波

해서

4(2)
-
222

회의문자①



破

깨뜨릴
파:

破자는 '깨트리다'나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破자는 石(돌 석)자와 皮(가죽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皮자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石자가 더해진 破자는 "돌을 벗기다", 즉 "돌을 깨부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破자는 '(일을)망치다'나 '홀트리다'와 같이 상황이 그릇됐음을 뜻하기도 한다.

破

소전

破

해서

4(2)
-
223

砲

대포 포:

형성문자 ①

礮(포)와 동자(同字). 石(돌석)部와 음(音)을 나타내며 동시(同時)에 통기어 날려보내는 뜻(爆폭)을 나타내기 위한 包(포)로 이루어짐. 돌을 멀리 날리는 기계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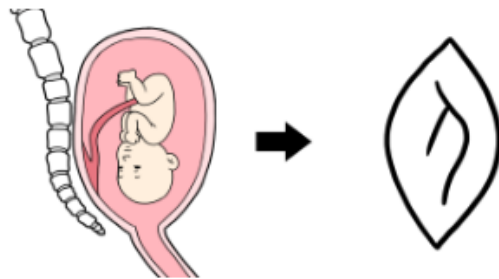
한글: 대포, 포탄, 포위, 포위망, 포위망, 포위망

4(2)
-
224

包

쌀[裹]
포(:)

회의문자 ①



包자는 '싸다'나 '감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包자는 勹(쌀 포)자와 巳(뱀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巳자는 '뱀'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태아의 팔과 다리를 생략해 그린 것이다. 그러니 包자는 자궁과 태아를 함께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包자의 갑골문을 보면 등

그런 원안에 人(사람 인)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자궁에 있는 아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包자의 본래 의미는 '둘러싸다'나 '아이를 배다'였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무언가를 둘러싼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엄마의 뱃속을 뜻할 때는 여기에 肉(고기 육)자가 더해진 胞(태 보 포)자가 쓰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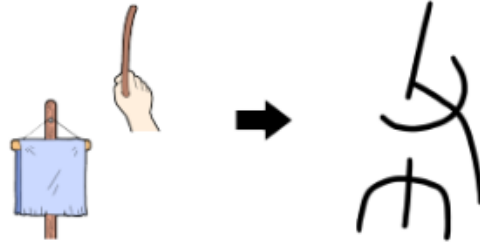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225

회의문자①



布

베/펼
포(:) |
보시 보:

布자는 ‘베’나 ‘펼다’, ‘베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布자는 又(또 우)자와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布자는 본래 ‘삼베’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금문에 나온 布자는 뭉둥이로 천을 두드리는 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갈포(葛布)나 마포(麻布)와 같은 의류용 직물을 다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삼이나 칩닥굴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布자는 직물을 다듬는 모습으로 그려져 ‘베’를 뜻했다. 그러나 후에 삼을 넓게 펴서 다듬는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펼다’나 ‘베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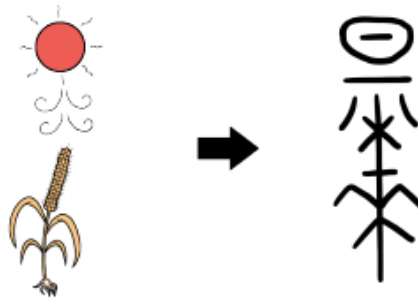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4(2)
-
226

회의문자①



暴

사나울
폭 |
모질 포:

暴자는 ‘사납다’나 ‘난폭하다’, ‘모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暴자는 日(해 일)자와 𠂔(함께 공)자, 水(물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暴자는 日자와 麥(보리 맥)자만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은 보리(麥)를 햇볕에 널어 말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麥자가 米(쌀 미)자로 바뀌었고 出(날 출)자와 升(받들 공)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햇볕(日)쬘는 날 나가(出) 쌀을(米) 두 손으로(升) 널어놓는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暴자는 본래 ‘쬘다’나 ‘말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햇볕이 매섭게 내리쬘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사납다’나 ‘난폭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후에 다시 여기에 日자를 더한 曝(쬘 폭)자가 ‘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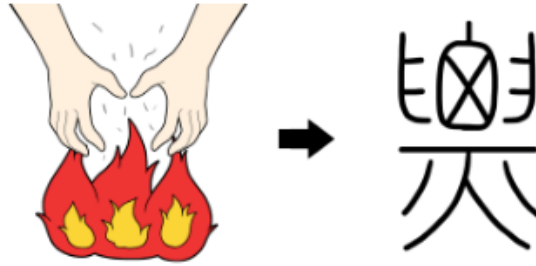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4(2)
-
227

회의문자①



票

표 표

票자는 '표'나 '증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票자는 示(보일 시)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票자의 소전을 보면 示자가 아닌 火(불 화)자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소전에 나온 票자를 보면 火자 위로 囟(정수리 신)자를 감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囟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불뚝'으로 응용되었다. 그러니까 소전에 나온 票자는 날아오르는 불뚝을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것은 재가 날아오르듯이 매우 가볍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票자의 본래 의미도 '가볍다'였다. 하지만 후에 동전보다 가벼운 '지폐'를 뜻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고대에 지폐라는 것은 서명이 들어간 '증서'를 뜻했다. 그래서 票자는 '가볍다'라는 뜻에서 '지폐'나 '증서'라는 뜻이 확대되었다. 참고로 票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가볍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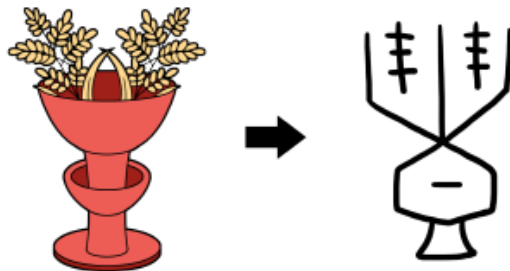
소전

票

해서

4(2)
-
228

상형문자①



豐

풍년 풍

豐자는 '풍년'이나 '넉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豐자는 豆(콩 두)자와 曲(굽을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曲자는 굽은 '자'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豐자는 제기 그릇 위로 곡식이 풍성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豐자의 갑골문을 보면 豆자 위로 禾(벼 화)자나 丰(예뿔 봉)자가 豐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그릇에 곡식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豐자는 본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예도'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곡식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모습에서 '풍년'이나 '풍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여기에 示(보일 시)자를 더한 禮(예도 예)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豐

갑골문

豐

금문

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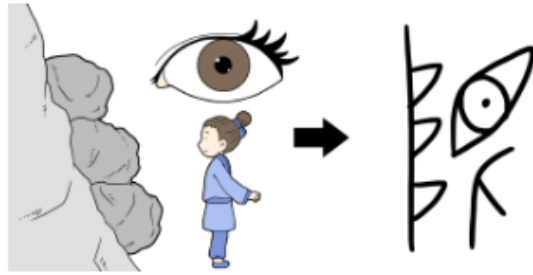
소전

豐

해서

4(2)
-
229

회의문자 ①



限

한할 한:

限자는 '한정되다'나 '한계', '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限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艮(어긋날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艮자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의 限자는 人(사람 인)자와 目(눈 목)자가 𠂔 결합한 형태였다. 이것은 무언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으나 흙더미에 가로막혀 시선에 한계가 생겼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소전에서는 艮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𠂔

금문

限

소전

限

해서

4(2)
-
230

상형문자 ①



航

배 항:

航자는 '배'나 '선박',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航자는 舟(배 주)자와 亢(오르다 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亢자는 양다리에 줄을 매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과 소전에 나온 航자를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였다. 갑골문에서는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지만 소전에서는 여기에 方(모 방)자가 더해진 航(떼배 항)자가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航자는 '떼배'를 뜻하는 航자에 있는 方자를 舟자로 바꾼 것으로 이것이 '배'와 관련된 글자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𠂔

갑골문

航

소전

航

해서